

주님, 이 시간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3천배 천배 백일기도, 내 나이 60을 넘을 때 내 맘은 지쳐있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성당으로 가리라 했던 마음도 아무것도 확신이 없이 정서적 방황이 나를 우울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갔다.

그때 “여보, 나 성당가고 싶어” 남편의 말이었다. 알고 지내던 이상길 라우렌시오에게 “우리 신랑 성당에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자, “네. 우리 빈첸시오에서 부산 베네딕도 수도원으로 피정 가는데 형수님도 같이 가요”하여 모든 약속이 되었다. 피정 가는 차 안에서 나 자신 묵은 짐을 털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수녀님들의 미사 시간에 천상의 소리 같은 성가가 내 맘에 강물을 끝없이 흐르게 할 것 같았다. 피정 후 남편과 함께 교리반에 입문하였고, (빈첸시오 회장(이상길)에 빈첸시오회 가업부터 하였다.) 결석 없이 기쁘게 다닌 교리반에서 이해인 수녀님이 지어주신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는 날 아침에 꿈을 꾸었다. 조그만 성모상이 불빛에 싸여 남편의 컴퓨터 옆자리에 내려와 멈추는 것이었다. 난 망설이기도 했지만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로 하고 남편은 「도미니코」 난 「베로니카」로 세례 받고 나니 왜 그리 맘이 편하고 즐거웠는지.....

내가 절에서 기도하다 지쳐버린 일들이 남편의 의구심 없는 기도 속에 조금씩 풀려갔다. 시간이 흘러 건진성사를 보게 되었다. 성당에 앉아 대모님 곁에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앞에 계시는 보좌신부님(시몬) 뒤에 환하게 하얀 모습의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오른손에 표주박 같은 것으로 물을 떠주시는 형상이 보일 때 난 ‘예수님이 왜 저곳에 계시지 생각하명 십자가 위를 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가만히 기도했다.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다. 세례에서 건진까지 오는 동안 왼쪽다리를 세 번이나 수술하였다. 누군가가 마귀의 장난이라고 했지만 난 더 열심히 교리공부를 마쳤다. 그리고 성당에 나오면 조용히 기도만 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많은 형제자매가 있다 보니 가끔은 얽힌 실타래 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 잠시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지만 이영열 세례자요한 대부님과 마리아 대모님의 주님 말씀들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모습을 배우려고 하며, 항상 주님 말씀을 상기시키며 끝없는 관심을 놓지 않는 이상길 라우렌시오, 지금 빈첸시오회를 이끌고 있는 이영경 로사,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행하는 회원들, 이런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양떼 물이꾼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당동에서 길음동성당까지 오듯이 항상 길음성당은 주님의 양떼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생각하며, 우리 부부 남은 시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많은 은총에 봉헌하고자 하며,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길음성당의 형제자매님을 위해 감사기도 잊지 않으며, 성모님께 두 손 모으는 이 시간 행복합니다.

2014. 길음동 성당 70주년을 기념하며.....(빈첸시오회원)

한 베로니카